

트럼프-김정은 '비핵화 로드맵' 합의 후 이행단계 최소화

북미정상회담 '세기의 담판' 이목 집중

미, 제재·압박 풀지 않고 1년내 일괄 타결 모색 북, 단계적 핵폐기 체제보장·경제 보상 노릴 듯

4·27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3~4주내에 열릴 북미 정상간 '세기의 담판'에 전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을 견인하면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최종 '완성'하는 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놓여있기 때문이다.

일단 북미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두말할 나위 없이 비핵화다. 완전한 비핵화가 '판문점 선언'에 담긴 만큼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는 이번 회담의 핵심이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을 낙관하기만은 어렵다.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 측에서는 핵·미사일 개발 시간만 벌여왔던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재를 통한 압박의 빗장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핵 폐기를 최대한 미루면서 체제보장과 경제적 보상 등 최대한의 반대급부를 얻어내겠다는 계산이다. 미국과 북한 모두 과거와 다른 여건과 각오 속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어 수 싸움이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의 당초 공언

한대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달성이 목표다. 그 방법론으로 이른바 '빅뱅 접근법'이 거론된다.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조치'에 맞서 처음부터 핵 폐기에 합의하며 일괄타결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핵 폐기 시한을 '6개월~1년'으로 못 박고 북 핵 문제의 완전 해결 시점은 2020년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은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해이자 최근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 총력 노선으로 방향을 튼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종료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비핵화 실행방식을 놓고는 '단계적·동시적' 접근을 꾀할 가능성이 크다. 즉각적 핵 폐기가 아닌 동결과 감축, 폐기 식으로 단계를 밟으며 매 단계마다 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체결, 국교정상화 등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도 함께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미 간의 막후 협상을 주목하고 있다. 폼페 이오 국무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의 비밀 면담 등을 통해 모종의 진전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북미 정상이 핵 폐기 목표를 담은 큰 틀의 로드맵에 합의하고 이행단계를 최소화해 최단 시간 내에 비핵화를 달성해나가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



정상회담 후 짙은 임진각 주차장 남북정상회담 이후 분단과 통일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듯 29일 오후 파주 임진각 주차장이 꽉 차 있다. /연합뉴스

온다. 한반도 비핵화의 업적을 발판으로 재선 가도를 닦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핵을 지렛대로 체제 안전을 끌어내려는 김 위원장이나 이번 담판에 정치적 명운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미의 신뢰를 이끌어 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도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北, 감출 것이 없다

매체 통해 판문점 선언 전문·비핵화 합의 등 대내외 공개

남북정상회담 하루만인 28일 북한 매체가 전날 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 전문을 그대로 소개하며 합의 이행의지를 재확인했다.

대외용인 조선중앙통신뿐 아니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대내용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도 선언 전문을 그대로 전달했다. 사실 판문점 선언에는 '비핵화' '북방한계선' '군축' 등의 표현이 담겨 북한으로선 대내외에 알리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작지 않았다고 보였으나, 이를 가감 없이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7일 오전 열린 정상회담을 소개한 기사에서 "회담에서

는 북남관계문제와 조선반도(한반도) 평화보장문제,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를 비롯하여 호상(상호)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솔직하고 허심탄화한 의견들이 교환됐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회담의 핵심의제 중 하나가 비핵화였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전날 남북정상회담 과정을 사진과 함께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총 6개 면 가운데 1~4면을 남북정상회담 소식으로 채웠다. 남북 정상회담의 첫 대면부터 작별까지 전 과정을 상세히 전하며 총 61장

의 다양한 사진을 게재했다. 특히 노동신문은 조선중앙통신과 마찬가지로 판문점 선언 전문 내용인 "북과 남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조선반도(한반도)의 북한식 표기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는 문구를 그대로 포함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매체인 노동신문에도 '완전한 비핵화' 문구를 넣은 것은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대내적으로도 공식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선전용 주간지 통일선보도 이날 '북한의 통일장정을 전하는 판문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과거 판문점 방문을 소개하며 이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북한은 이번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에서 걸고러울 수 있는 표현도 그대로 전파했다. /최권일기자 cki@연합뉴스

북미정상회담 장소 싱가포르 급부상

美 매체 "한반도·중국, 중립적이지 않아 배제"

북미정상회담 개최 후보지로 싱가포르가 급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2곳'이라고 언급하는 등 북미정상회담의 '역사적 현장'이 될 장소 선정 작업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하루 전날만 해도 '5곳'이 거론됐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곳이라고 언급하면서 현지 언론 등은 싱가포르를 개최지로 주목하고 있다. 개최지 선정은 북미정상회담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관심을 모은 4·27 북미정상회담 개최 직후 한층 더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CNN 방송은 이날 정상회담 장소 선정 논의에 정통한 인사 2명을 인용, "최종 결론에 도달해야 알겠지만,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싱가포르를 선호하고 있다"며 중국과 한반도는 중립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이유로 배제됐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장거리 이동 문제 등

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행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을 소개했다. 몽골도 여전히 살아있는 선택지지만,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해 싱가포르만큼 이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CNN은 전했다. 다만 아직 발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이 방송은 보도했다.

4·27 북미정상회담이 '완전한 비핵화'와 '연내 종전 선언' 등의 합의 성과를 내고 마무리된 가운데 북미 정상의 담판 준비 작업에 더 더욱더 탄력이 붙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 후보지가 2곳으로 좁혀졌다는 사실을 전하며 "그곳이 어디인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면서도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관해 매우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 만남(장소)과 구체



적 시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했던 5곳은 스위스(제네바), 스웨덴(스톡홀름), 싱가포르, 몽골(울란바토르), 괌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종 선정 결과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대북 확성기 철거·DMZ 평화지대 구축

5월 남북 군사회담 의제는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5월 중 열리는 남북 정상급(소장급) 군사회담의 의제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군 당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들을 우선 실행하는 문제로 의제를 좁힐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우선 대북 확성기 철거와 전단살포 중지,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인 평화

이외환경 개수부간 직통전화(하라인) 개설 문제에 의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남북의 국방부 장관-인민무력장 또는 함철의 장-총참모장 간에 집무실 핫라인을 설치해 지상·해상·공중에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임야삽니다!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010-6838-123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서항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평소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평소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심의회번호 : 2179239

010-3598-7080

풋살구장 매매(급매)

시청에서 9분, 전남대에서 14분!!

상황중 즉시이용 가능(최근완공)

풋살구장4면+사무실+손님휴게실+사위장+화장실

토지 약1600평(구장 1천평, 주차장 600평)
토지 임대(매매안함)
(CCTV 등 시설 및 관련 물품포함)

◆시세가 3억3천◆
매매가 2억6천5백

구장운영자 010-6603-0680

다스크리브 세라코리브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크리브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리브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1.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2.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3. 태양광 영업 인제 모집

ONE-STOP TOTAL SOLUTION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 분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처
다 스 코 리 브	전략기획	전략기획	· 사업기획/영업 분석/기획, 판매 지원 인성
다 스 코 리 브	신사업개발	영업	· 태양광영업 관리자
다 스 코 리 브	수입영업	R&D	· 전기공학 관련 전공자(공학계)
다 스 코 리 브	생산관리	영업	· 설계영업 관리자
다 스 코 리 브	영업(지역)	R&D	· 영업 관련학과 전공자 무대